

파5홀 레이업의 목적은 세 번째 샷 지점 고르기

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 골프 코스는 난이도가 제각각이다. 어려운 골프장이 있는가 하면 버디가 쏟아지는 수월한 코스가 있다. 대개 프로선수들은 4라운드 대회에서 12언더파 내외가 우승 스코어라면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라고 여긴다. 15언더파 이상이라면 쉬운 골프장이고 9언더파 이하라면 어려운 코스다. 그러니 4라운드 우승 스코어가 5언더파 이하라면 내로라하는 선수들도 찢찢맬 만큼 매우 어려운 코스라고 봐도 무방하다.

코스를 어렵게 만들기로 유명한 US오픈은 4라운드 합계 스코어가 언더파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 반대로 20언더파가 넘는 스코어를 쳐야 우승할 수 있는 골프장도 있다. 난이도가 높으면 실력과 정신력이 뛰어난 선수를 가려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상 시험하는 선수는 괴롭고 보는 사람은 안쓰럽다. 반면 20언더파 이상 나오는 수월한 코스

에서 경기를 치르면 긴장감은 떨어지지만 홀마다 버디를 쓸 어담는 선수는 신바람 나고 보는 관객도 즐겁다.

주최 측은 대회 성격에 따라 코스 난이도를 결정한다. 메이저대회가 코스를 어렵게 세팅하는 이유는 진정한 챔피언을 가려내자는 뜻이다. 하지만 축제처럼 긴장감 없이 선수와 관중이 즐기는 대회는 다르다. 선수들이 마음껏 버디 사냥에 나설 수 있게 난이도를 확 낮춘다. PGA 투어 시즌 개막전 현대 토너먼트오브챔피언스가 그렇다. 작년 투어 대회 우승자를 초청해 치르는 이 대회는 시즌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선수들이나 팬이나 몸풀기에 해당한다. 화끈한 버디 파티로 분위기를 띄운다.

대회가 열리는 하와이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는 7천411야드라는 길지 않은 전장에 파벨류는 73이고 내리막이 많아 거리 부담이 적다. 페어웨이는 넓적하고 러프도

파5홀을 공략할 때 투온이 불가능하다면 세 번째 샷을 가장 자신 있는 거리에서 칠 수 있도록 작전을 세워야 한다. 현대 토너먼트오브챔피언스 우승자 스티브 스트리커는 철저하게 세 번째 샷을 75야드 이내에서 치도록 레이업해 4라운드 내내 18번 홀에서 버디 4개를 뽑아냈다. AP_연합뉴스

거의 없는 데다 그린도 그리 까다롭지 않아 대회 때마다 이글과 버디가 풍년을 이룬다. 올해 우승자 스티브 스트리커는 나흘 동안 23언더파를 쳤다. 2003년 어니 엘스는 무려 31언더파를 때려 우승했다.

플랜테이션 코스는 특히 18번 홀(파5, 663야드)이 백미다. 이론상 200야드씩 세 번을 쳐도 그린에 올라가지 못하는 엄청난 거리의 파5홀이지만 선수들은 쉽게 투온한다. 버디는 기본이고 이글도 드물지 않게 잡아낸다. 663야드라지만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이 떨어지는 페어웨이까지 낙차가 30m가 넘는 내리막인 데다 페어웨이기도 그린 방향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티샷 비거리가 400야드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2000년 이곳에서 벌어진 타이거 우즈와 엘스의 승부는 아직도 골프 팬들의 뇌리에 또렷하게 남아 있다. 최종 라운드에서 우즈와 엘스는 나란히 18번 홀에서 이글을 잡아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우승컵의 향방은 17번 홀(파4)에서 결정됐지만 18번 홀에서 두 선수가 나란히 이글을 뽑아낸 장면은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파5홀에서는 거리 역산이 요령

올해 대회는 스트리커의 일방적인 질주로 극적인 승부는 없었지만 스트리커의 18번 홀 공략은 눈여겨볼 만했다. 스트리커는 티샷 비거리가 290야드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해 비거리 부문 순위는 투어선수 가운데 113위였다. 그렇지만 웨지샷과 퍼팅에선 따라올 선수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 스트리커는 웨지로 처리하는 50~150야드 거리의 샷을 핀에서 평균 4.5m 옆에 떨어뜨린다. 단연 투어 으뜸이다.

스트리커는 18번 홀을 공략할 때 철저하게 세 번째 샷을 75야드 이내에서 치도록 레이업했다. 지난해 스트리커는 50~75야드 거리에서는 대부분 한 번의 퍼트로 끝냈다. 이번 대회에서도 4라운드 내내 18번 홀에서 버디 4개를 뽑아냈다. 18번 홀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 우승으로 가는 길목이 험난한 곳이 바로 플랜테이션 코스다. 두 번 만에 그린에 공을 올리기에는 티샷 비거리가 짧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스트리커는 자신의 장기인 웨지샷과 퍼팅으로 승부를 건 셈이다.

파5홀을 공략할 때에는 거리를 역산(逆算)하라고 한다. 투온이 불가능하다면 세 번째 샷을 가장 자신 있는 거리에서 칠 수 있도록 작전을 세워야 한다. 100야드 샷을 가장 잘 치는 선수라면 500야드짜리 파5홀에서 두 번에 400야드를 전진하면 된다. 티샷으로 250야드를 날린 뒤 150야드를 7번 아이언으로 치는 방법도 있겠고 티샷을 안전하게 210야드만 때려 놓고 5번 우드로 190야드를 보내는 방법도 있겠다.

파5홀에서의 레이업은 세 번째 샷을 가장 자신 있는 클럽으로, 가장 안전한 지점에서 치기 위한 수순임을 잊지 말자. 

권훈 LA 특파원 khoon@yna.co.kr

